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헤롯 가문’에 대한 역사적 이해

류호성*

1. 문제 제기

공관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여러 명의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등장한다.¹⁾ 누가복음 3:1의 “아빌레네의 분봉왕 루사니아”²⁾와 사도행전 13:1의 “헤롯의 짓동생 마나엔”을 제외하면 11명이나 된다. 그중에서 남자는 7명이고, 여자는 4명이다. 이들에 대한 이름을 성경에 등장하는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름의 표기는 『개역개정』을 따랐다).

첫 번째는 ‘헤롯 왕’(마 2:1; 눅 1:5), 두 번째는 ‘아켈라오’(마 2:22), 세 번째는 ‘분봉 왕 헤롯’(마 14:1; 눅 3:1, 19; 9:7; 행 13:1)으로도 표현되었지만, 마가복음 6:14에는 ‘헤롯 왕’으로, 마태복음 14:9에서는 ‘왕’으로 표현되었고 일부에서는 호칭 없이 ‘헤롯’(눅 9:9; 13:31; 23:7; 행 4:27)으로 나타난다. 네 번째는 ‘헤롯의 동생 빌립’으로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이고(마 14:3; 막 6:17; 참고 눅 3:19),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이끈 ‘헤로디아’(마 14:3; 막 6:17; 눅 3:19)와 이름 없이 등장하는 그녀의 딸이고(마 14:6; 막 6:22), 일곱 번째는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인 빌립’(눅 3:1), 여덟 번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행 12:1-2), 아홉 번째는 총독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행 24:24), 열 번째와 열한 번째는 베스도와 함께 바울의 재판에 관여한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행 25:13)이다.

복음서 기자들은 이 헤롯 가문의 사람들과 거의 근접한 시기에 살았기

* 서울장신대학교, 신약학.

1) 이 글의 도움을 위해 맨 뒤쪽 <참고자료>에 헤롯 가문의 가계도를 첨부하였다. 이 가계도는 S. Mason, 『요세푸스와 신약성서』, 유태엽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29에서 인용.

2)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유대 땅을 자식들에게 나누어서 다스리게 한 것으로 보거나 또한 ‘헤롯 가문’의 사람들과 함께 언급된 점으로 보아 ‘루사니아’는 헤롯 가문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역사적 정보가 미약하기에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힘들다.

에, 이들을 등장 시켜 성경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갈 때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³⁾ 또한 독자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호칭이나 이름을 달리 사용하여 각각의 사람들을 구분하였다. 그 예를 들면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누가-행전에서 누가는 ‘**유대 왕 헤롯**’(눅 1:5)과⁴⁾ ‘**분봉 왕 헤롯**’(눅 3:19)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아버지 헤롯과 아들 헤롯을 구분하였고, 또한 둘 다 ‘아그립바’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헤롯 왕**’(행 12:1)과 ‘**아그립바 왕**’(행 25:13)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서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의 독자들은 이 헤롯 가문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오늘날 성경의 독자들은 신약 성서 시대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1세기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상적인 성경의 독자라면 신약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파악하고 글 읽기를 하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책을 읽는 독자들치고, 작품을 읽기 전에 먼저 그 작품의 배경이나 등장인물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고 읽는 독자들은 몇 명이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톨스토이의 『부활』이나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읽을 때에,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배경이나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먼저 살피지 않고 작품을 읽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신약 성경의 경우야 믿음의 문서이기 때문에 자주 되풀이해서 읽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 당시의 역사적 정보를 듣기에, ‘헤롯 가문’의 사람들 쯤이야 이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이를 위해서도 독자의 부단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성탄절 헤롯 효과’⁵⁾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교회는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2장을 토대로 성탄 연극을 공연한다. 이 연극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유명하지는 않지만, 연극을 본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갖고 있는 평화스러운 모습이나,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갖고 있는 순결한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동방 박사들이나 목자들처럼 예수를 경배하고 싶어 한다. 반면 예수를 죽이려고 한 ‘헤롯 왕’에 대해서는 적개심과 분노를 갖는다. 그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고정 관념으로 자리 잡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계

3) 마가가 세례 요한을 처형한 자를 ‘헤롯 왕’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의할 것이다.

4) 이 논문의 모든 굵은 글씨는 저자의 강조이다.

5) 이 용어는 저자가 이 글을 쓰면서 만들어 낸 것으로, 인지심리학의 ‘적화 이론’(Priming Theory)에서 힌트를 얻었다. ‘적화 이론’이란 시간적으로 먼저 제시된 자극이 나중에 제시된 자극의 정보 처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속해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헤롯’이나 ‘헤롯 왕’이라는 단어를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인물로 생각한다. 곧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헤롯 왕’을 마가복음 6:14와 사도행전 12:1에 등장하는 ‘헤롯 왕’과 동일시한다. 물론 마태 기자가 ‘헤롯 왕’의 죽음에 대해서 짧게 보도하지만(마 2:20-22),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마태의 이 보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세례 요한도 죽이고(마 14:1-12; 막 6:14-29; 눅 9:7-9) 또한 예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인 것으로(행 12:1-2) 독자들은 이해한다.⁶⁾

세 번째 이유는, 동명이인(同名異人)에 대한 성경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여러 명의 부인들 사이에 많은 자손을 두었다. 그 가운데 두 명의 빌립이 있었다. 한 명은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인 ‘빌립’(마 14:3; 막 6:17; 눅 3:19)이고, 다른 한 명은 이두래와 드라고넛 지방을 다스린 ‘빌립’(눅 3:1)이다. 이들은 서로 다르지만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헤로디아의 두 번째 남편을 기준으로 해서 “그의 동생 빌립”(Φιλίππου τοῦ ἀδελφοῦ αὐτοῦ - 마 14:3; 막 6:17; Φιλίππου δὲ τοῦ ἀδελφοῦ αὐτοῦ - 눅 3:1)이라고 설명 한다. 이들은 헤로디아 두 번째 남편인 ‘헤롯’의 이복동생들로, 다른 어머니에게 태어난 자들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헤롯 가문’의 사람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롭게 성경을 번역한다면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성경 번역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대안은 없는가? 이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우리가 ‘헤롯 가문’의 사람들에 대해 정확한 역사적 정보를 가지면 가질수록, 신약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또한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⁷⁾ 곧 텍스트는 컨텍스트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6)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 독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것 같다. 실제로 저자가 2013년도 12월 러시아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러시아어로 성경을 읽는 그들도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왕’을 모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으로 인식하였다.

7) 드실바(David A. deSilva) 사회-수사학적 해석법을 설명하면서 해석자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본문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해석자는 (1) 자세한 분석을 통하여 본문에만 집중하며, (2) 그러한 본문 속에서 그 본문이 다른 ‘본문’과 대화하는 방식을 연구하며, (3) 그 본문을 만들어 낸 세상에 대해 조사하며, (4) 그리고 어떻게 그 본문이 직접 그 세상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다”(David A. deSilva, 『신약개론』, 김경식 외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29). 여기서 세 번째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 해석자는 “1세기의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런 정보는 신약 성경 안에도 들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너무 제한되어 있다. 가장 유용한 자료는 요세푸스의 문헌이다.

2. 대안 1: 번역자가 성경 본문에 직접 개입해서 이름을 교정한다

이 대안은 번역자가 성경 본문에 직접 개입해서, ‘헤롯 가문’의 사람들에게 다른 이름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곧 이들의 이름을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와 『유대고대사』에서 찾아,⁸⁾ 이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특별히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헤롯 왕’과 동명이인인 ‘빌립’과 ‘아그립바’에 대해서 달리 이름을 표기하는 것이다. 이 대안의 기준점은 ‘헤롯 가문’에서 제일 처음 유대의 왕위에 오른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헤롯 왕’으로⁹⁾ 한다. 여기서 ‘호칭’도 사람을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볼 것이다.

2.1.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세 명의 ‘헤롯 왕’

2.1.1.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헤롯 왕’(마 2:1-21; 눅 1:5)

이 ‘헤롯 왕’에 대한 언급은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의 탄생과 관련하여 소개되고 있고,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하여 소개되고 있다. 세례 요한과 예수가 거의 동시대에 활동한 인물이기에 마태와 누가의 보도는 같은 시대를 의미한다. 그에 대한 성경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헤롯 왕**(*Ἡρώδου τοῦ βασιλέως*)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헬에서 나 시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마 2:1)

“**헤롯 왕**(*ὁ βασιλεὺς Ἡρώδης*)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마 2:3)

“**유대 왕 헤롯**(*Ἡρώδου βασιλέως τῆς Ἰουδαίας*) 때에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눅 1:5)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헬의 2살 미만의 유아들을 살해한 ‘헤롯 왕’에¹⁰⁾ 대해서, 요세푸스는 많은 역사

8) 요세푸스의 문헌이 신약성서의 해석에 도움이 된다는 글은 S. Mason, 『요세푸스와 신약성서』를 참조. 일부의 학자들은 요세푸스의 문헌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여, 그가 보도한 역사적 자료들에 의구심을 갖는다. 그러나 요세푸스의 사료는 쿨란문헌과 헤로디움의 발굴 등으로, 역사적 진정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분명한 것은 많은 학자들이 요세푸스의 문헌을 성서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받아들이고 있다.

9) 이 논문에서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헤롯 왕’은 ‘헤롯 가문’에서 처음으로 ‘왕’이 된 자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지칭한다.

적 정보를 주고 있다. ‘헤롯’은 그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다.¹¹⁾ ‘왕’이 되기 이전에 그는 갈릴리의 ‘총독’(στρατηγός)으로¹²⁾ 그리고 형 파사엘과 함께 유대 ‘분봉 왕’(τετράρχας)의¹³⁾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BC 40년에는 페르시아 세력을 끌어들이어 유대의 권좌에 오른 하스몬 왕가의 안티고누스(Antigonus, BC 40-37년 유대 통치)에게 쫓겨 로마로 피신하여 안토니우스(Antonius)를¹⁴⁾ 만난다. 안토니우스는 헤롯으로부터 유대의 정치적 상황을 듣고 나서, 유대 나라가 페르시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 로마에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로원의 도움을 빌어 헤롯을 유대의 ‘왕’(βασιλεύς)으로 임명한다.¹⁵⁾ 헤롯은 ‘왕’으로 임명을 받고 7일 만에 유대로 귀국한다. 하지만 다스릴 영토가 없기에 3년 동안 로마의 힘을 빌어 안티고누스와 전쟁을 하였다. 마침내 그는 BC 37년에 안티고누스를 쫓아내고 유대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되었다. BC 31년 그리스의 악티움 해전에서 자신의 정치적 후견자인 안토니우스가 후에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에게 패하자, 정치적 위기를 다시 맞이하였다. 그래서 그는 혈혈단신으로 로마로 건너가 아우구스투스를 만난다. 그리고 자신이 안토니우스 지지자라는 것을 솔직히 말하며, 그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자, 아우구스투스는 그의 솔직함에 반해 그에게 ‘왕’의 자리를 인정해 주었다.¹⁶⁾

‘헤롯’은 유대의 ‘왕’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를 ‘헤롯 대왕(大王)’이라고 부른다.¹⁷⁾ 이것은 마치 로마가 헤롯에게 ‘대왕’의 호칭을 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요세푸스가 헤롯 가문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그에게 ‘대(大) 헤롯’(Ἡρώδη τῷ μεγάλῳ)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연유한 것이다.¹⁸⁾ 요세푸스가 헤롯에게 ‘大’(τῷ μεγάλῳ)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호칭

10)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정성을 평가한 것은 류호성, “‘호칭’을 통해 살펴본 헤롯 가문에 대한 역사적 이해 -설교자를 위한 마 2:1-23절의 역사적 배경”, 『신약성경과 설교』 (한국 신약학회, 2013. 4. 13), 32-46 참조.

11) 헤롯의 가족사에 대해서는 이 글 4. 1.의 ‘헤롯 왕’을 참조.

12) 『유대고대사』 14:158(이하 논의 되는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나 『유대전쟁사』에 관한 모든 자료는 ‘BibleWorks 7’의 분류를 따랐다. 이 분류에 따른 우리말 번역본은, 요세푸스, 『요세푸스』 I-VII [서울: 달산출판사, 1992]이다. 필자도 이를 많이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13) 『유대고대사』 14:326.

14) 안토니우스는 로마의 정치가로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와 함께 제2차 삼두정치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그는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패하자 자살하였다(BC 30년). 그의 아내가 그 유명한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 VII이다.

15) 이에 대해서는 Ibid., 14:381-389 참조.

16) 이에 대해서는 『유대고대사』 15:187-196 참조.

17) L. I. Levine, “Herod the Great”, *ABD* III, 161-169 또는 C. L. Rogers, 『요세푸스』, 김정우 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2000), 19-42 참조.

18) 『유대고대사』 18:130, 133, 136.

이라기보다는 그의 가문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헤롯,’¹⁹⁾ 곧 그의 자녀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大’(τῶ μεγάλῳ)를 사용한 것이다.²⁰⁾ 그러기에 마태와 누가의 진술대로 그에게 ‘왕’의 호칭을 붙여주어 ‘헤롯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이 사람이 그의 가문에서 제일 처음에 왕의 자리에 올랐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자들은 그의 자손들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해서 마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헤롯 왕’들을 살펴보자.

2.1.2.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막 6:14)=“분봉 왕 헤롯”(마 14:1)=“갈릴리 분봉 왕 헤롯”(눅 3:1)

‘헤롯 가문’의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다. 그는 세례 요한을 처형하기도 하였으며(막 6:14-29; 마 14:1-12; 눅 9:7-9) 또한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고(눅 13:31), 예수의 재판에도 관여하였다(눅 23:5-12; 행 4:27). 그는 부친 ‘헤롯 왕’과 모친 사마리아 사람인 ‘말다케’(Malthace)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친형은 마태복음 2:22에 등장하는 ‘아켈라오’이다.²¹⁾ 그는 신약 성경에서는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나, 요세푸스 문헌에는 주로 ‘안티파스’로²²⁾ 일부에서는 ‘헤롯’으로도²³⁾ 나타난다. 그는 두개의 이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성경 기자가 그를 ‘헤롯’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나, 그의 이름이 아버지 ‘헤롯’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을 일으킨다. 이 혼동을 피하고자 누가복음 23:7을 예를 들어, 그의 이름을 바꾸어 보자.

누가복음 23:7 본문: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1. 단어 ‘헤롯’을 ‘**안티파스**’로 바꾸는 대안: “**안티파스**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안티파스**에게 보내니 그 때에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있더라”

2. 단어 ‘헤롯’의 뒤에 ‘**안티파스**’를 붙이는 대안: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니 그 때에 **헤롯 안티파스**가 예

19) 아기 예수를 죽인 ‘헤롯 왕’ 이외에 그의 문에는 적어도 6명이나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요세푸스, 『색인』(서울: 도서출판 달산, 1991), 251-252 참조.

20) 이 설명에 대해서는 C. L. Rogers, 『요세푸스』, 19 또는 요세푸스, 『유대고대사』 IV (서울: 달산출판사, 1992), 249, 각주 192 참조.

21) 『유대전쟁사』 1:562-563.

22) Ibid., 1, 562; 『유대고대사』 17:20. 우리말로 음역하면 ‘안디바’라고도 하지만, 여기서는 ‘안티파스’로 표기한다.

23) 『유대고대사』 18:136에서는 “헤롯은 당시 갈릴리 지방의 분봉 왕이었다”라고 보도한다.

루살렘에 있더라’

‘헤롯’ 대신에 ‘안티파스’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우리는 예수의 재판에 관여한 자가 누구인지 더욱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헤롯’이라는 이름 뒤에 ‘안티파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헤롯 안티파스’라고 칭하면 다른 어려움이 따른다. 곧 ‘헤롯 안티파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 유대식 이름에는 우리나라처럼 아버지의 성(姓)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모르고, ‘헤롯’을 성(姓)으로 그리고 ‘안티파스’를 이름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 ‘헤롯’이나 ‘안티파스’나 둘 다 이름인데 말이다. 그러기에 두 번째 대안보다는 첫 번째 대안이 적절하다.

혹자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헤롯’에 ‘τετράρχας’(분봉 왕)²⁴⁾라는 호칭이 마태복음 14:1이나 누가복음 3:1, 19; 19:7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헤롯 왕’과 구별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호칭이 사람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기에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를 마가 기자는 6:14에서 아버지와 동일한 호칭을 부여하여 ‘헤롯 왕’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마가가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덜 혼동하였을 것이다. 그럼 혼동의 책임이 ‘왕’과 ‘분봉 왕’을 구별하지 못한 마가 기자에게 있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가 기자는 1세기의 인물로, 우리보다 훨씬 근접해서 ‘헤롯 가문’의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마가의 보도와 이것과 병렬 관계에 있는 마태와 누가의 자료들을 살펴보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ὁ βασιλεὺς Ἡρώδης)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 **왕**(ὁ βασιλεὺς)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앓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막 6:14, 26)

24) 헬라어 ‘τετράρχας’를 우리말 성경은 ‘분봉 왕’으로 번역하였다(마 14:1; 눅 3:1, 19; 19:7; 행 13:1). 이것을 『공동번역』은 “갈릴레아 영주 … 왕”이라고 또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성경』은 “영주”로 번역하였다. ‘τετράρχας’의 문자적 의미는 “4분의 1의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이다. 이것을 한자어로 합성하여 ‘분봉 왕’으로 번역한 것이다. 헤롯 가문에서는 ‘왕’의 호칭이 중요하기에 가급적이면 ‘왕’이 들어간 ‘분봉 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다고 공동번역이나 천주교 성경처럼 ‘영주’로 번역하는 것은 봉건시대의 흔적이 너무 강하기에, 훨씬 앞선 예수 시대의 의미를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헬라어 ‘τετράρχας’에 대한 적절한 대응어 찾기가 힘들어, 이 논문에서 ‘분봉 왕’으로 사용한다. 중국어 성경 『Chinese Union 简体』나 『Chinese Union 繁體』는 우리말 성경과 동일한 의미인 “分封的王”으로 번역하였다.

“그 때에 **분봉 왕 헤롯**(Ἡρώδης ὁ τετραάρχης)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 **왕**(ὁ βασιλεύς)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마 14:1-2, 9)

“**분봉 왕 헤롯**(Ἡρώδης ὁ τετραάρχης)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눅 9:7)

위의 진술들을 자료설에 입각하여 설명하면 마가가 ‘왕’으로 표현 한 것을, 마태가 ‘분봉 왕’으로 수정하고 일부에서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누가는 마가의 것을 수정하여 ‘분봉 왕’이라고 표현하였으며 또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눅 1:3) 살폈기에 3:1에서는 “갈릴리 분봉 왕”(τετρααρχούντος τῆς Γαλιλαίας Ἡρώδου)이라고 통치 지역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세례 요한을 처형한 ‘헤롯’의 호칭은 ‘분봉 왕’이다. 이에 대해서 요세푸스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케사르[=아우구스투스]는 양편의 주장을 들은 후에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바로 모임을 해산시켰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난 후에 케사르는 **민족의 통치자(ἑθναρχην)**라는 명칭과 함께 헤롯의 왕국의 반을 **아켈라오**에게 주면서 왕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면 나중에 **왕(βασιλέα)**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케사르는 나머지 헤롯의 왕국의 반을 다시 두 개의 **분봉국(τετραρχίας)**으로 나누고 헤롯의 다른 두 아들인 빌립과, 아켈라오와 왕위 다툼을 한 안티파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에 200달란트의 연수입이 들어오는 **페리아(Perea)**와 **갈릴리(Galilee)**는 **안티파스**가 다스리게 되었고, 100달란트의 연수입이 예상되는 **바타네아(Batanea)**, **드라고닛(Trachonitis)**, **아우라니티스(Auranitis)** 그리고 **얌니아(Jamnia)** 인근 지역의 **제노(Zeno)** 가문의 땅의 일부는 **빌립**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다.”(Τότε μὲν οὖν Καίσαρ ἀκούσας ἑκατέρων διέλυσε τὸ συνέδριον μετὰ δ’ ἡμέρας ὀλίγας τὸ μὲν ἡμισυ τῆς βασιλείας Ἀρχελάῳ δίδωσιν ἑθναρχην προσειπών ὑποσχόμενος δὲ καὶ βασιλέα ποιήσειν εἰ ἄξιον ἑαυτὸν παράσχοι τὸ δὲ λοιπὸν ἡμισυ διελὼν εἰς δύο τετραρχίας δυσὶν ἑτέροις παισὶν Ἡρώδου δίδωσιν τὴν μὲν Φιλίππῳ τὴν δὲ Ἀντίπα τῷ πρὸς Ἀρχελάου ἀμφισβητοῦντι περὶ τῆς βασιλείας ἐγένετο δὲ ὑπὸ τούτῳ μὲν ἢ τε Περαιά καὶ Γαλιλαία πρόσδοδος διακόσια τάλαντα Βατανέα δὲ καὶ Τράχων Αὐρανιτίς τε καὶ μέρη τινα τοῦ Ζήνωνος οἴκου τὰ περὶ ἰνῶνα πρόσδοον ἔχοντα ταλάντων ἑκατὸν ὑπὸ Φιλίππῳ τέτακτο)²⁵⁾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자녀들에게 유대 왕국을 분할하여 통치하도록 유언을 남긴 ‘헤롯 왕’의 유언장을 인준하면서, ‘안티파스’를 ‘갈릴리와 베로아’의 ‘분봉 왕’으로 임명한다. 그러기에 그가 ‘왕’이 아닌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하지만 마가는 안티파스에 대해서 더 많은 역사적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왕’이란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듯하다.²⁶⁾

첫 번째는,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로부터 공식적으로 ‘왕’의 호칭을 얻지는 못하였지만, 한 때는 문서적으로 ‘왕’의 위치에 있었고 적어도 ‘헤롯 가문’ 내에서는 형 ‘아켈라오’보다 더 나은 유대의 통치자로 인식되었다. 마가는 이 자료를 알고 있는 듯하다.²⁷⁾ ‘헤롯 왕’은 총 세 번의 유언서를²⁸⁾ 작성하였다. 제일 첫 번째는 이두매 여자 도리스(Doris)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 안티파테르(Antipater)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보내면서 작성하였다. 거기에는 안티파테르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며, 만일 그가 죽으면 대제사장의 딸 마리암메(Mariamme)에게서 낳은 ‘빌립’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기록하였다.²⁹⁾ 하지만 그의 아들 안티파테르가 자신을 독살하고 왕권을 차지하려는 것을 알고, 이 유언서를 변경하여 두 번째 유언서를 작성한다. 거기에는 ‘안티파스’에게 자신의 왕국을 물려주려고 하였다.³⁰⁾ 그리고 세 번째 유언서는 죽기 5일 전에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인준한 것과 거의 동일하다.³¹⁾ 차이점 하나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헤롯 왕’은 ‘왕’의 호칭을 ‘아켈라오’에게 물려주고 싶었으나, 황제는 그에게 ‘민족의 통치자’(ἐθνάρχην)라는 칭호를 주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왕’의 칭호를 준다고 약속하였다. 안티파스는 ‘헤롯 왕’이 죽기 5일 전에 작성한 세 번째 유언장 보다는, 온전한 상태에서 먼저 작성한 두 번째 유언장이 더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가족들도 그의 생각에 동조하였다. 그래서 그는 형 아켈라오와 ‘왕’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였으나,³²⁾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헤롯

25) 『유대전쟁사』 2:93-95. 같은 내용이 『유대고대사』 17:317-318에서도 나타난다.

26) 이에 대해서는 Ho-Seung Ryu, *Jesus und Johannes der Täufer im Matthäusevangelium* (Frankfurt: Peter Lang, 2006), 59-64 참조.

27) 안티파스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었고 또한 마가가 로마에서 자신의 복음서를 저술하였다는 점은, 헤롯 가문에 대해서 폭넓은 정보를 얻기에 충분하였다.

28) ‘헤롯 왕’이 자신의 후계자에 대해서 구두로는 여러 번 언급하였지만, 문서적으로는 세 번 있었다.

29) 『유대고대사』 17:52-53.

30) 『유대전쟁사』 1:644-646; 『유대고대사』 17:146-148.

31) 『유대고대사』 17:188-190.

32)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유대고대사』 17:224-249, 317-320 참조.

왕’의 세 번째 유언장을 효력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두 번째는, ‘왕’과 관련하여 얼룩진 안티파스의 삶을 풍자하기 위해서, ‘왕’이란 호칭을 사용한 것이다. 바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그는 유대의 ‘왕’이 되고자 형과 경쟁을 벌였다. 또한 그는 처남인 ‘아그립바’가 로마의 3번째 황제인 ‘가이우스’(AD 37-41년 통치)로부터 ‘왕’의 호칭을 얻고 유대로 오자, 호칭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³³⁾ 곧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별 볼일 없는 오빠가 ‘왕’이 되어 자신의 남편보다 더 높은 칭호를 갖고 유대로 돌아오자, 이를 시샘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왕’이 되어야 한다고 안티파스를 끈질기게 졸라댔다. 결국 안티파스는 ‘왕’의 호칭을 얻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가이우스 황제를 만나러 로마로 향하였다. 그러나 이를 알아차린 아그립바가 “안티파스는 페르시아 왕과 결탁하여 로마에 반역하려고 공모를 꾸미고 있으며, 그 증거로는 병기고에 7만의 병사들이 입고도 남을 갑옷들을 준비해 놓았다” 하고 가이우스에게 미리 밀서를 보냈다. 이 밀서를 본 가이우스가 안티파스에게 갑옷에 대해 묻자, 이것이 잘 알려진 사실이기에 안티파스는 거짓말하지 못하고 사실이라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안티파스는 아내 헤로디아와 함께 골(Gaul) 지방으로 추방되었다. 한마디로 안티파스는 ‘왕’이라는 호칭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것으로, 마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가는 ‘왕’이 아닌 안티파스에게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당시의 독자들에게 명예욕으로 점철된 안티파스의 삶을 풍자적으로 묘사하고자 하였다.

2.1.3. 부록 1: 마태복음 2:22의 번역에 관한 문제점

앞서 ‘헤롯 왕’의 유언장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내용은, 우리에게 성서 번역과 관련하여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제공해 준다. 곧 아우구스투스는 아켈라오에게 ‘왕’(βασιλεύς)이란 호칭을 바로 수여하지 않고, 그 아래 단계인 ‘민족의 통치자’(ἐθνάρχη)라는 호칭을 수여하고, 그가 통치를 잘하면 ‘왕’의 호칭을 준다고 약속하였다. 아켈라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22에 단 한 번 등장한다. 이에 대한 헬라이어 본문과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estle-Aland 28: “ἀκούσας δὲ ὅτι Ἄρχελαος βασιλεύει τῆς Ἰουδαίας ἀντὶ τοῦ πατρὸς αὐτοῦ Ἡρώδου ἐφοβήθη ἐκεῖ ἀπελθεῖν”

33)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유대고대사』 18:240-256; 『유대 전쟁사』 2:181-183 참조.

『개역개정』: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새번역』: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영어 NRSV: “But when he heard that Archelaus **was ruling** over Judea in place of his father Herod, he was afraid to go there.”

영어 GNT: “But when Joseph heard that Archelaus had succeeded his father Herod **as king** of Judea, he was afraid to go there.”

독일어 Luther-Revision 1984: “Als er aber hörte, daß Archelaus im Judäa **König** war anstatt seines Vaters Herodes, fürchtete er sich, dorthin zu gehen.”

독일어 Einheitsübersetzung 1979: “Als er aber hörte, daß in Judäa Archelaus an Stelle seines Vaters Herodes **regierte**, fürchtete er sich, dorthin zu gehen.”

2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헬라어 동사 ‘βασιλεύει’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흐름이 있다. 하나는 그것을 명사로 이해하여 우리말 ‘임금’에 해당하는 동의어 ‘**king**’ 그리고 ‘**König**’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말 『개역개정』과 『새번역』 그리고 영어의 GNT와 독일어의 Luther 번역이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βασιλεύει’가 동사이기에 동사로 이해하여, ‘다스리다’ 또는 ‘통치하다’로 번역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동의어는 영어로는 ‘**was ruling**’ 이며 독일어는 ‘**regierte**’이다. 여기에는 영어의 NRSV와 독일어의 Einheitsübersetzung이 있다.

일부 번역본에서 동사 ‘βασιλεύει’를 명사 ‘βασιλεύς’로 해석하는 것은, 두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2절에서 동사 ‘βασιλεύει’를 명사로 해석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곧 역사적으로 결코 ‘왕’이 아니었던 아켈라오를 ‘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22절에서 동사 ‘βασιλεύει’를 우리말 ‘왕’이나 ‘임금’으로 번역하면 안되고, ‘다스리다’ 또는 ‘통치하다’로 번역해야 한다. 곧 다음과 같이 말이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를 **다스린다(또는 통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였다.”³⁴⁾

34) 이에 대해서는 류호성, “‘호칭’을 통해 살펴본 헤롯 가문에 대한 역사적 이해 -설교자를 위한 마 2:1-23절의 역사적 배경”, 44-45 참조.

2.1.4. 사도 야고보를 처형한 “헤롯 왕”(행 12:1-2, 19-23)

예수 시대에서 제자 시대로 바뀌었다. 하지만 다시 ‘헤롯 왕’이 등장하여 교회를 박해하여 예수의 제자이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처형한다. 또한 그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가 연설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주의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이에 대한 보도는 사도행전 12:1-2, 19-23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때에 **헤롯 왕**(Ἡρώδης ὁ βασιλεύς)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다”(행 12:1-2)

“**헤롯**(Ἡρώδης)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 **헤롯**(ὁ Ἡρώδης)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행 12:19-23)³⁵⁾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누구인가? 그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헤롯 왕’의 손자이며, 친여동생이 세레 요한을 죽음으로 이끈 헤로디아이다. 그의 부친은 아리스토불루스(Aristobulus)이며, 모친은 베르니카(Bernice)이다.³⁶⁾ 부친 아리스토불루스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헤롯 왕’이 하스몬 왕가의 마리아메(Mariamme)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이다. 그리고 그의 모친 베르니카(Bernice)는 ‘헤롯 왕’의 여동생 살로메와 코스토바루스(Costobarus)에게서 낳은 딸이다.³⁷⁾

그는 친할아버지 ‘헤롯 왕’이 죽기 얼마 전에 로마로 와서 티베리우스 황제(AD 14-37년 통치)의 아들과 함께 양육을 받았다. 그는 돈을 함부로 쓰는 못된 습관 때문에 가산을 다 탕진하고 유대로 귀환하지만, 빛 독촉에 시달리자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 사실을 알고 그의 아내 키프로스(Cyprous)³⁸⁾가 시누이 헤로디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헤로디아의 남편, 곧 갈릴리의 분봉 왕 안티파스는 그를 디베랴(Tiberias)의 재정장관으로 임명하였다. 하지만 그는 두로(Tyro)의 잔치 석상에서 안티파스와

35) 사도행전 12:19-23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19와 21절 두 번 사용되었다. 19절 후반부와 20, 23절은 우리말 번역 과정에서 들어간 것이다.

36) 이들 사이에서는 세 아들 ‘헤롯(Herod), 아그립바(Agrippa), 아리스토불루스’(Aristobulus)와 두 딸 ‘헤로디아(Herodias)와 마리아메(Mariamme)’를 두었다. 『유대 전쟁사』 1:552. 참조.

37) 『유대 전쟁사』 1:552-553; 『유대 고대사』 18:132-134.

38) 그녀의 부친은 파사엘(Phasaël)이다. 이 파사엘은 ‘헤롯 왕’의 형 파사엘(Phasaël)의 아들로 동일한 이름을 가졌다. 그녀의 모친은 살람프시오(Salampsio)로, ‘헤롯 왕’이 하스몬 왕가의 마리아메에게서 낳은 딸이다. 『유대고대사』 18:131 참조.

싸우고 틀어지면서 수리아에 잠시 머물다가, 아내의 도움으로 다시 로마로 향하였다.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를 만나지만, 그에게 빌린 돈 30만 드라크마를 갚지 않은 것이 밝혀지자, 황제는 빚을 갚기 전에는 다시는 황실에 나타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그는 로마의 4대 황제가 될 클라우디우스(AD 41-54년 통치)의 어머니 안토니아(Antonia)에게 돈을 빌려, 빚을 청산하고 로마의 황실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특히 그는 3대 로마의 황제가 될 가이우스와 두터운 친분을 맺게 되었다. 그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빨리 물러나고 가이우스가 황제가 되기를 바라는 말을 무심코 내뱉었다가, 자신의 중의 배반으로 티베리우스 앞에서 재판을 받아 6개월간 감옥에 수감되었다. AD 37년에 가이우스는 황제에 오르자, 그를 감옥에서 석방하고 ‘왕’으로 임명하여 빌립의 영지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한 그는 AD 41년에 가이우스가 암살되고,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등극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³⁹⁾ 이에 클라우디우스는 보답으로 그에게 ‘왕’의 지위를 다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부 ‘헤롯 왕’이 다스렸던 모든 지역을 그가 다스리게 하였다.⁴⁰⁾ 그는 AD 44년에 갑작스런 복부 고통으로 57세로 생을 마감한다. 누가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2:22-23에 보도한다. 이와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요세푸스는 더욱 자세히 그의 죽음에 대해서 보도한다. 곧 그가 로마 황제 가이사라 기념하는 가이사라의 축제에 ‘은’으로 짜여진 옷을 입고 참석하였다. 이 옷이 아침 햇살에 신비한 빛을 발하자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고 칭송하였고, 이것을 그는 거절하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강한 복부 통증을 느꼈고, 5일 간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죽었다.⁴¹⁾

이 ‘헤롯 왕’을 요세푸스는 ‘아그립바’(Αγρίππας)나⁴²⁾ 왕의 호칭을 부쳐서 ‘아그립바 왕’(Αγρίππας ὁ βασιλεύς)⁴³⁾ 이라고 불렀다. 또한 ‘대’(μέγας)자를 사용하여 존경이나 그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아들과 구별하고자 ‘아그립바 대왕’(Αγρίππας ὁ μέγας τὴν βασιλείαν⁴⁴⁾; ὁ τοῦ μεγάλου βασιλέως Ἀγρίππα⁴⁵⁾)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요세푸스는 ‘헤롯’이라는 이름은 피하였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헤롯’이라 불리는 친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 칼키스(Chalcis)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되었

39) 『유대고대사』 18:143-239; 『유대전쟁사』 2:206-217 참조.

40) 『유대고대사』 19:274-275 참조.

41) 『유대고대사』 19:343-352 참조.

42) 『유대전쟁사』 1:552; 『유대고대사』 18:110, 131 참조.

43) 『유대고대사』 18:289 참조.

44) 존경의 표현으로 요세푸스, 『유대고대사』 18:142.

45) 아버지와의 아들을 구분하는 표현으로 요세푸스, 『유대고대사』 17:28; 20:104 참조.

기에,⁴⁶⁾ ‘헤롯 왕’(βασιλεὶ Ἡρώδη)이라고 불렸다.⁴⁷⁾ 그는 클라우디우스 황제로부터 성전의 통치권과 현금 관리권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 받았다.⁴⁸⁾ 신약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누가는 사도 야고보를 죽인 자를 ‘헤롯 왕’이라고 명명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아그립바 왕’(Ἀγρίππας ὁ βασιλεύς)이라고 수정하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 언급된 아기 예수를 죽인 ‘헤롯 왕’과 또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 곧 ‘안티파스’와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1-2, 19-23에 등장하는 ‘헤롯’을 ‘아그립바’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대안: “그 때에 **아그립바 왕**(Ἀγρίππας ὁ βασιλεύς)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다.”(행 12:1-2)

대안: “**아그립바**(Ἀγρίππας)가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 **아그립바**(ὁ Ἀγρίππας)가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행 12:19-23)

이처럼 ‘헤롯’ 대신 ‘아그립바’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우리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또한 왕복을 입고 연설하다가 주의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파생한다. 그것은 이 ‘아그립바’는 슬하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는데, 그도 ‘왕’의 호칭을 갖고 있었기에, 누가 기자는 그를 사도행전 25장에서 ‘**아그립바 왕**’(Ἀγρίππας ὁ βασιλεύς, 행 25:13)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3명의 ‘헤롯 왕’에 대한 표현을 해결하려다가, 다시 2명의 ‘아그립바 왕’을 만나는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누가는 이런 어려움을 피하고자 아버지 ‘아그립바’에게는 요세푸스가 사용하지 않은 ‘헤롯’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아들에게는 이름 그대로 ‘아그립바’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 사도 요한을 죽인 아버지 ‘아그립바’에게, 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행전 25:13, 24에 등장하는 아들 ‘아그립바’에 대해서 달리 표기해야 한다. 바로 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46) 『유대전쟁사』 2:217, 221.

47) 『유대고대사』 20:13.

48) 『유대고대사』 20:15-16.

2.1.5. 부록 2: 베스도 총독과 함께 사도 바울의 재판에 관여한 ‘아그립바 왕’(행 25:13-26:32)

사도 야고보를 죽인 ‘아그립바 왕’은 그의 아내 ‘키프로스’ 사이에서 두 아들과 세 딸을 두었다.⁴⁹⁾ 아들은 자신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아그립바’(Agrippa)와 청년이 되기 전에 죽은 ‘드루수스’(Drusus)였고, 딸은 ‘버니게’(Berenice, 행 24:13), ‘마리암메’(Mariamme) 그리고 사도행전 24:24에서 총독 벨릭스의 아내로 나타나는 ‘드루실라’(Drusilla)이다. 아버지 ‘아그립바 왕’이 AD 44년에 죽자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아들 ‘아그립바’에게 유대 왕국을 물려주려고 하였다. 하지만 17세의 어린 ‘아그립바’가 유대 왕국 전체를 다스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신하들이 조언하자 이것을 받아들여 유대에 다시 총독을 파견하였다.⁵⁰⁾ 하지만 AD 49년에 백부인 칼키스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죽자, 클리우디우스는 ‘아그립바’에게 같은 권한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다.⁵¹⁾ 그리고 네로 황제는 ‘아그립바’에게 더 많은 영토를 주어 갈릴리의 일부와 디베랴 그리고 베레아(Perea)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다.⁵²⁾ 아들 ‘아그립바’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5:13-26:32에 등장한다.

“수일 후에 **아그립바 왕**(Ἀγρίππας ὁ βασιλεύς)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 **아그립바**(Ἀγρίππας)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 **아그립바**(Ἀγρίππας)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 이에 **아그립바**(Ἀγρίππας)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행 25:13-26:32)⁵³⁾

누가는 두 명의 ‘아그립바’를 구별하고자, 아버지를 ‘헤롯 왕’(Ἡρώδης ὁ βασιλεύς)으로 그리고 아들을 ‘아그립바 왕’(Ἀγρίππας ὁ βασιλεύς)으로 명명하였다. 이것이 누가에서 가능했던 칼키스 지역을 다스린 ‘헤롯 왕’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세푸스의 경우에는 칼키스의

49) 『유대고대사』 18:131-132; 19:354-355.

50) 『유대고대사』 19:360-362.

51) 『유대고대사』 20:104. 요세푸스가 그에게 ‘왕’의 호칭을 사용한 것은 『유대고대사』 2, 632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52) 『유대고대사』 20:159.

53) 이 부분에서 ‘아그립바’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12번 사용되었으나, 성경 원문에는 11번 사용되었다(행 25:13, 22, 23, 24, 26; 26:1, 2, 19, 27, 28, 32). 우리말 성경 26:7에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삽입된 것이다.

‘헤롯 왕’에 대해서 언급하였기에, 누가처럼 사도 야고보를 죽인 ‘아그립바 왕’에게 ‘헤롯 왕’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었다. 곧 요세푸스는 칼키스의 ‘헤롯’과 사도 야고보를 죽인 ‘아그립바’를 구분하였다.

그럼 요세푸스는 동명이인인 ‘아그립바’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였을까? 요세푸스는 아버지 ‘아그립바’와 아들 ‘아그립바’가 서로 독립된 단락에 등장할 때에는 각각 ‘아그립바’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아버지는 로마 황제 가이우스와 클라우디우스 시대의 사람으로 『유대고대사』 17-19권에 등장하고,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난 다음의 클라우디우스와 네로 시대에 활동한 인물로 『유대고대사』 20권에 등장한다. 여러 시대적 정황과 함께 설명되기에 이들을 구별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언급하였을 때에는 요세푸스도 이들을 구별해야만 했다.

그 방법으로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버지 ‘아그립바’에게 ‘대’(μέγας)자를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요세푸스는 바타네아(Batanea) 지역의 세금 면제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아그립바 대왕과 그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아들은 그들에게 심하게 과세를 부과하였으나,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자유는 박탈하지 않았다”(Ἀγρίππας μέντοι γε ὁ μέγας καὶ ὁ παῖς αὐτοῦ καὶ ὁμώνυμος καὶ πάνυ ἐξετρόχωσαν αὐτούς οὐ μέντοι τὰ τῆς ἐλευθερίας κινεῖν)⁵⁴⁾

요세푸스가 아그립바를 ‘대왕’으로 부르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이지, 로마가 아그립바에게 ‘대왕’이라는 호칭을 준 것은 아니다. 이것은 여러 명의 ‘헤롯’을 구분하기 위해서 요세푸스가 ‘헤롯 왕’에게 ‘대’자를 붙인 것과 동일하다. 우리가 이 방법을 적용하여, 아버지 ‘아그립바’를 ‘아그립바 대왕’으로 부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막강한 정치력을 과시한 할아버지 ‘헤롯 왕’에게도 ‘대’자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보다 여러 면에서 열등한 손자에게 ‘대’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정황상 맞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한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칼키스의 헤롯이 죽자, 그가 다스린 지역을 아들 아그립바에게 물려주었다.

“칼키스의 헤롯이 죽자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아그립바의 아들 아그립바에게 그의 왕국을 넘겨주려고 하였다”(Μετὰ δὲ τὴν Ἡρώδου τελευτήν

54) 『유대고대사』 17:28.

ὃς ἦρχε τῆς Χαλκίδος καθίστησιν Κλαύδιος εἰς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οῦ θεοῦ τὸν Ἀγρίππαν υἱὸν Ἀγρίππα)⁵⁵⁾

만약 우리가 이 방식을 따르고자 한다면 좀 혼잡하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5:13의 “수일 후에 아그립바 왕과” 라는 표현을 “수일 후에 아그립바 왕의 아들 아그립바 왕”으로 이름을 중복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아들 ‘아그립바’에게 ‘작은’ 또는 ‘젊음’을 뜻하는 형용사 비교급 단어 ‘νεώτερος’를 사용하여 구분하였다.⁵⁶⁾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아버지 아그립바가 죽자 세바스테(Sebaste=사마리아)와 가이사랴(Caesarea)의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아버지 아그립바가 통치했던 지역을 아들에게 물려주길 원하였다.

“이에 클라우디우스는 작은 아그립바=아그립바 2세]를 보내 부친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해주려고 하였다. 게다가 왕위 계승을 자신의 맹세로 확고하게 해주려고 하였다”(πέμπειν οὖν εὐθέως ὄρμητο τὸν νεώτερον Ἀγρίππαν τὴν βασιλείαν διαδεξόμενον ἅμα βουλόμενος ἐμπεδοῦν τοὺς ὁμωμοσμένους ὄρκους)⁵⁷⁾

이 방법을 신약성서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듯하다. 그런데 단어 ‘νεώτερος’를 ‘작은’이라는 본래적 이름보다는 가계의 지위나 차례를 뜻하는 의미로 ‘2세’(二世)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작은’이라는 단어는 ‘큰 아버지’ 또는 ‘작은 아버지’처럼 형제지간에 사용하지,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들을 ‘아그립바 2세’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자동적으로 ‘아그립바 1세’가 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인물을 ‘아그립바’라고 명명하기로 했기에, 아들의 이름만 변경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지만 우리말 사도행전 25:13-26:32에는 ‘아그립바’라는 단어가 12번 나타나기에, 12번의 단어를 모두 ‘아그립바 2세’라고 변경하는 것보다는,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도행전 25:13의 한 문장만 바꾸어도 될 듯하다. 곧 “곧 수일 후에 아그립바 왕 2세(Ἀγρίππας νεώτερος ὁ βασιλεύς)와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 라고 말이다.

55) 『유대전쟁사』 2:223.

56) 박창건, 『신약성서 헬라어 단어, 속어 사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201.

57) 『유대고대사』 19:362와 『유대고대사』 20:9에는 “죽은 자의 아들인 작은 아그립바”(ὁ νεώτερος Ἀγρίππας ὁ τοῦ τετελευτηκότος παῖς)라는 표현이 나온다.

2.2. 헤롯 가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빌립’

신약성서는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을 ‘빌립’(마 14:3; 막 6:17; 눅 3:19)이라고 칭하였고, 또한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을 ‘빌립’(눅 3:1)이라 칭하였다. 그래서 독자들은 이들이 같은 사람이라고 혼동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들은 ‘헤롯 왕’이 다른 부인들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다.

2.2.1.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인 ‘빌립’(마 14:3; 막 6:17; 눅 3:19)

‘헤롯 왕’은 자신이 죽인 하스몬 왕가의 공주 ‘마리암메’를 제외하고, 아홉 명의 아내를 두었다.⁵⁸⁾ 헤롯은 아내 하스몬 왕가의 ‘마리암메’를 죽이고 나서, 예루살렘에 ‘시몬’(Simon)이라는 제사장에게 절세미인(絶世美人)의 딸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의 미모가 회자되자, ‘헤롯 왕’도 그녀를 보고 싶어 하였다. 기회가 있어 ‘헤롯 왕’이 그녀를 보자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그녀를 소유하고 싶었으나, 폭군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그녀의 아버지 시몬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결혼을 하였다.⁵⁹⁾ 그녀의 이름은 자신이 죽인 하스몬 왕가의 마리암메(Mariamme)와 동일하며, ‘헤롯 왕’ 사이에서 아들 한 명을 두었다. 요세푸스는 그를 ‘헤롯’이라 불렀고,⁶⁰⁾ 마태와 마가 기자는 ‘빌립’이라 칭하였다(마 14:3; 막 6:17). 그는 헤로디아와 결혼하였으며,⁶¹⁾ 세례 요한의 처형에 등장하는 ‘살로메’라는 딸을 두었다(막 6:22).⁶²⁾ ‘헤롯 왕’은 마리암메와 그녀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을 모두 처형하고 나서, 손자들을 불쌍히 여긴 나머지 인척 결혼을 시켰다. 그래서 ‘헤롯 왕’은 자신의 아들 ‘빌립’을 친손녀인 ‘헤로디아’와 결혼시켰다. 그리고 ‘헤롯 왕’은 이 ‘빌립’을 이두매 여인에게서 낳은 장자 ‘안티파테르’ 다음으로 자신의 왕국을 이어갈 후계자로 지명하였다.⁶³⁾

그러나 안티파테르는 빨리 왕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 ‘헤롯 왕’을 독살할 계획을 세운다. 이 비밀스런 계획이 탄로가 났고, ‘헤롯 왕’은 관련자들을 고문하면서 사건 전모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게 되었다. 관련자들을 고문하

58) ‘헤롯 왕’의 부인들과 그의 자녀에 대해서는 『유대전쟁사』 1:562-563; 『유대고대사』 17:19-22; 18:130-142를 참조.

59) 『유대고대사』 15:320-322.

60) 『유대전쟁사』 1:562; 『유대고대사』 17:19.

61) 『유대전쟁사』 1:557; 『유대고대사』 17:14.

62) 『유대고대사』 18:136.

63) 『유대전쟁사』 1:573, 588; 『유대고대사』 17:53.

는 과정에서 ‘헤롯 왕’은 자신의 아내로 대제사장 시몬의 딸인 마리암메가 독살의 모든 계획을 알고도 묵인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화가 난 ‘헤롯 왕’은 그녀와 이혼하고, 그녀의 아버지로 대제사장인 시몬을 내쫓아냈으며 또한 그녀의 아들 ‘헤롯,’ 곧 ‘빌립’을 후계자의 명단에서 지워버렸다.⁶⁴⁾

한편 갈릴리의 분봉 왕 ‘안티파스’는 로마로 가는 길에 이복동생인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된다. 여기서 그는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보고 그만 사랑에 빠져서 청혼하였다. 그러자 헤로디아는 청혼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안티파스에게 아내와 이혼하라고 요청하였다. 안티파스의 아내는 아랍의 나바테아(Nabataea) 왕국, 아레타스(Aretas) 왕의 딸이었다. 안티파스는 로마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헤로디아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아레타스 왕의 딸은 이 사실을 미리 들어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계획을 세워 마키루스 성으로 피신한 다음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사건의 전말을 알렸다. 그러자 아레타스 왕은 국경의 문제로 안티파스와 갈등하고 있는 참에, 이를 빌미로 군사를 일으켜 안티파스를 공격하였다. 안티파스는 패배하였으나, 티베리우스 황제가 군대를 보내어 그를 유대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안티파스가 패배한 것이, 그가 의로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생각하였다.⁶⁵⁾

앞서 언급하였듯이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 곧 대제사장 시몬의 딸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요세푸스는 ‘헤롯’이라 불렀고, 마태와 마가 기자는 ‘빌립’이라 칭하였다. 이 ‘빌립’은 누가복음 3:1에 등장하는 드라고넛 지역을 다스린 ‘빌립’과 다른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요세푸스가 ‘헤롯’으로 불렀고 마태와 마가가 ‘빌립’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를 합성하여 ‘헤롯 빌립’으로 부르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헤롯’을 성으로 그리고 ‘빌립’을 이름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회피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누가복음 3:1에 등장하는 다른 ‘빌립’에게는 ‘헤롯’이라는 친형이 있기 때문이다.⁶⁶⁾

두 번째는, 아버지는 ‘헤롯 왕’으로 동일하니까 어머니의 이름을 갖고 구별하는 것이다. 곧 헤로디아 첫 번째 남편인 ‘빌립’의 모친은 ‘마리암메’이다. 그래서 ‘마리암네의 아들 빌립’으로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헤롯 왕’에

64) 『유대고대사』 17:78.

65) 『유대고대사』 18:109-116.

66) 『유대전쟁사』 1:562; 『유대고대사』 17:21.

게는 두 명의 ‘마리암메’라는 부인이 있기에 출신 성분을 표기하여, ‘대제사장의 딸 마리암네의 아들 빌립’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은 구체적이어서 좋을 것 같으나 수식하는 것들이 많기에 더욱 혼동을 초래한다. 그리고 하스몬 왕가의 마리암메는 ‘빌립’이라는 아들을 두지 않았기에 ‘대제사장의 딸’이라는 표현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음처럼 바꾸는 것이다.

마가복음 6:17 “전에 헤롯이 자기‘가’⁶⁷⁾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대안: “전에 안티파스가 자기 이복동생, 곧 마리암메의 아들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마태복음 14:3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대안: “전에 안티파스가 그 이복동생, 마리암메의 아들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동생’을 구체적으로 ‘이복동생’으로 밝혀 주고 또한 ‘빌립’이라는 이름 앞에 그의 모친의 이름을 사용하여 ‘마리암메의 아들’이라고 표시하면, 헤롯디아의 첫 번째 남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헤로디아가 그의 친형제가 아닌 사람과 결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2.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리는 ‘빌립’(눅 3:1)

‘헤롯 왕’은 아홉 명의 아내 중 예루살렘 출신의 ‘클레오파트라’(Cleopatra) 사이에서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헤롯’과 ‘빌립’으로 로마에서 양육되었다.⁶⁸⁾ 아들 ‘헤롯’에 대한 역사적 정보는 없지만, ‘빌립’은 누가복음 3:1의 기록처럼 아버지 ‘헤롯 왕’에 의해 연간 100달란트 수입이 되는 드라고닛(Trachonitis)과 그 인근 지역을 물려받았다.⁶⁹⁾ 그는 이복 형제인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 왕’의 유언을 인준받기 위해 아우구스투스를 만나러 갔을 때에, 그 기간 동안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대리 통치하였다.⁷⁰⁾ 그는 사생활이나 통치하는 데 있어서 조용하고 온순하였으며, 통치 기간 중에 한 번도 자신의 영토 밖을 나가지 않았다.⁷¹⁾ 그는 나라를 순시하면서 선별된 친구 몇 사람을 대동하였고, 가는 곳 마다 재판을 열어 억울한 사람

67) 우리말 표현에서 ‘가’라는 조사를 삭제하는 것이 어감상 더 좋다.

68) 『유대전쟁사』 1:562; 『유대고대사』 17:19; 18:136.

69) 『유대전쟁사』 1:668; 『유대고대사』 17:189, 319.

70) 『유대고대사』 17:219.

71) 『유대고대사』 18:106-108.

들의 호소를 해결해 주었다. 그는 헤로디아와 그녀의 첫 번째 남편, 곧 ‘빌립’ 사이에서 태어난 딸 ‘살로메’와 결혼하였으나 슬하에 자녀들 두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가 AD 37년에 죽자 티베리우스 황제는 그의 영토를 수리아 지역에 병합시켰고, 후에 가이우스 황제는 이 영토를 사도 야고보를 처형한 ‘아그립바 왕’에게 물려주었다.⁷²⁾ 그는 누가복음 3:1에 단 한 번 등장한다. 그도 ‘빌립’이기에, 앞선 방법대로 모친의 이름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누가복음 3:1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대안: “안티파스가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이복동생,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빌립이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이처럼 모계 혈통을 통해서 구분하면, 헤롯디아의 첫 번째 남편과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린 ‘빌립’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2.3. 결론 및 평가

이 대안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을 기준으로 해서 헤롯 가문의 사람들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다. 곧 세례 요한을 처형한 ‘헤롯’은 ‘안티파스’로, 사도 야고보를 처형한 ‘헤롯’을 ‘아그립바’로, 사도 바울의 재판에 참석한 ‘아그립바’를 ‘아그립바 2세’로 그리고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인 ‘빌립’을 ‘마리아메의 아들 빌립’으로,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린 ‘빌립’을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빌립’으로 교정하는 것이다.

이 대안의 장점은 헤롯 가문의 사람들에게 각각 구별된 이름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들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안은 한국의 기독교 독자들에게 반발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진보나 보수적인 견해를 떠나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참고, 계 22:19).

3. 대안 2: 번역자가 본문은 그대로 두고 ‘각주’를 이용한다

72) 『유대고대사』 18:237.

이 대안은 현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의 본문을 그대로 두고 각주를 활용하는 것이다. 곧 헤롯 가문의 사람들 등장하는 곳에 각주 표시를 하고, 그들에 대해서 아주 짧은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칙으로는 유대 나라를 통치했던 자들에게는 그 기간을 표시하며 또한 그들의 특징들에 대해서는 성경 기자들과 같은 시각을 갖고 설명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의 자료들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3.1. ‘헤롯 왕’(마 2:1; 눅 1:5)

BC 37-BC 4년 유대 전역을 통치한 이두메인. 친인척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해.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이 애도하지 않을 것을 알고, 전국에서 유력 인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죽음과 동시에 처형하도록 명령함.

3.2. ‘아켈라오’(마 2:2)

BC 4-AD 6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 즉위하자마자 유월절 기간에 폭동이 일어났고, 이를 진압하면서 동쪽 3000여 명을 살해. 폭정으로 폐위되자, 그가 다스린 지역에 로마 총독이 파견. 본디오 빌라도는 이 총독들 중에 한명.

3.3. ‘분봉 왕 헤롯’(마 14:1; 눅 3:1, 19; 9:7; 행 13:1)=‘헤롯 왕’(막 6:14)

BC 4-AD 39년 갈릴리와 베뢰아 지역을 통치한 분봉 왕. 헤로디아와 결혼하자, 첫 번째 부인의 장인 나바테아 왕의 침공을 받고 패함.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처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으로 생각. 집권 초기에는 ‘왕’의 호칭을 얻으려고 형 아켈라오와 경쟁. 후반기에는 아내의 끈질긴 요청으로 ‘왕’의 호칭을 얻으려고 노력. 하지만 군비를 비축하여 로마에 반기를 든다는 아그립바의 밀서로 인해 가이우스 황제에게 아내와 함께 쫓겨남.

3.4.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행 12:1-2)=아그립바

AD 37-44년 유대를 통치. ‘헤롯 왕’의 친손자. 이름은 아그립바이며, 헤로디아의 친오빠. AD 37년에 절친한 가이우스가 황제로 등극하자 ‘왕’의 호

칭과 함께 빌립의 영지를 다스림. AD 41년에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등극에 큰 역할. 이로 인해 유대 전역을 다스리게 됨. 44년에 가이사라 기념하는 가이사라 지역의 축제에 은으로 짜인 옷을 입고 참석. 그 옷이 신비한 빛을 발하자 백성들이 그를 신으로 추앙.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5일간 복부 고통을 느끼다가 57세로 죽음.

3.5. 베스도와 함께 바울의 재판에 관여한 ‘아그립바 왕’(행 25:13)= 아그립바 2세

AD 48-66년까지 유대의 일부 지역 통치. 사도 야고보를 죽인 아그립바의 아들로 이름이 동일. 부친이 사망하였을 당시 17세의 어린나이였기에 유대를 통치하지 못함. 그러나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AD 48년에는 레바논에 있는 칼키스 지역을, AD 53년부터는 빌립의 영지를 다스리게 했고, 네로 황제는 여기에다가 아빌라와 갈릴리의 디베랴를 다스리게 함. AD 59년경에는 가이사라로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을 방문하는 동안 바울의 재판에 참여하여 무죄를 선언.

3.6.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인 ‘빌립’(마 14:3; 막 6:17)

어머니는 대제사장 가문인 마리암메. 한때는 유대 나라를 통치할 후계자로 지명됨. 하지만 어머니가 ‘헤롯 왕’의 독살 계획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 밝혀지자 후계구도에서 밀려남. 헤로디아 사이에서 살로메라는 딸이 있음.

3.7.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 ‘빌립’(눅 3:1)

BC 4-AD 34년까지 드라고닛과 그 주변 지역을 온순하게 통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의 클레오파트라이며,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와 결혼. 통치기간 내내 자신의 영토를 떠난 적이 없고, 지방은 순시할 때는 몇 사람을 대동하여 수시로 재판을 열어 억울한 사람들의 호소를 들어 줌. 자녀가 없이 죽게 되자, 그의 영지는 수리아에 합병.

3.8. 부록 3: 그 외의 헤롯 가문의 사람들

3.8.1. ‘헤로디아’(마 14:3; 막 6:17; 눅 3:19)

‘헤롯 왕’의 친손녀로, 마리암메의 아들 빌립과 결혼. 그러나 이복형제인 안티파스가 청혼하자, 아내인 나바테아 공주와 이혼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전쟁을 불러일으킴. 친오빠 아그립바가 ‘왕’의 칭호를 얻자, 이를 시기하여 남편에게도 ‘왕’이 되라고 끈질기게 요청. 하지만 군비를 비축하여 로마에 반기를 든다는 아그립바의 편지를 보고, 가이우스 황제가 이들 부부를 쫓아냄.

3.8.2. 이름 없이 등장하는 헤로디아의 ‘딸’(마 14:6; 막 6:22)

한때 ‘헤롯 왕’의 후계자로 지명된 마리암메의 아들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태어난 딸. 이름은 살로메로, 드라고넛을 통치한 분봉 왕 빌립과 결혼하였으나, 자녀는 두지 못함.

3.8.3. 총독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행 24:24)

아그립바의 막내딸로, 친오빠는 바울의 재판에 참석한 아그립바 2세. 수리아의 작은 분봉국인 에메사의 왕과 결혼하였으나 오래가지 못함.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여 그녀의 미모를 보고 반함. 그가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보내 파혼을 유도하여, 그녀와 결혼함.

3.8.4. 베스도와 함께 바울의 재판에 관여한 ‘버니게’(행 25:13)

사도 야고보를 죽인 아그립바의 딸. 첫 번째 남편이 죽자 백부인 칼키스 지역을 다스린 헤롯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둬. 그도 죽자 오랫동안 과부로 지냄. 그러다가 오빠 아그립바 2세와 간통하였다는 소문이 있자, 길리기아의 왕을 할례시켜 결혼함. 하지만 얼마 후에 이혼하고, 유대 종교를 떠남.

3.9. 결론 및 평가

이 대안은 세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는 성경 본문에 대한 손상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각주 활용을 통하여 헤롯 가문의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 셋째는 무엇보다도 성경 기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방향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성경 기자가 역사적 사실성을 토대로 성경을 기록하였다는 확신을 준다. 그러나 단점은 독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본문에 집중하기에, 각주를 잘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헤롯 가문의 사람들만 유독 각주 처리하여 성경 전체의 모양새가 좋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나 헤롯 가문에 대한 언급은 성경 본

문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4. 대안 3: 번역자가 부록을 이용한다

이 대안은 ‘대안 2’의 각주 활용을 좀 더 확대한 것이다. 각주가 성경 본문 아래에 두기에 정보 제공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성경 뒷부분에 용어해설이라는 ‘부록’을 이용하여, 헤롯 가문의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역사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한 예로 ‘헤롯 왕’에 대해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⁷³⁾

4.1. ‘헤롯 왕’

‘헤롯 왕’은 이두매인으로 BC 37-4년까지 유대 전역을 통치한 ‘왕’으로, 그가 다스릴 때에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마 2:1; 눅 1:5). 그의 부친은 안티파테르(Antipater, ~BC 43년)이며 모친은 키프로스(Cypros)로, 모두 이두매에서 실권을 지닌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들 슬하에는 파사엘(Phasael), 후에 왕이 된 헤롯, 요셉(Joseph)과 페로라스(Pheroras) 라는 아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딸로는 살로메(Salome)가 있었다. 안티파테르는 당시 왕이며 제사장이었던 하스몬 왕가의 힐카누스가 동생 아리스토틀루스(II)에게 권력을 빼앗기자, 형 힐카누스를 지지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져나갔다. 특별히 케사르가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킨 폼페이우스를 물리치고 로마의 실권을 잡고 애굽 원정을 떠났을 때에, 그는 3,000명의 유대 병사를 이끌고 케사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케사르가 안티파테르를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하였다(BC 47년). 유대의 실권자가 된 그는 큰 아들 파사엘에게는 예루살렘을 그리고 둘째 아들 헤롯에게는 갈릴리를 다스리게 하였다.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잘 다스렸으나, 산헤드린의 허락도 없이 수리아 지역의 도적떼들을 소탕한 것이 문제가 되어 법정애 소환된다. 그러나 그는 산헤드린 법정애 군사를 대동하고 가는 담대함을 보였고, 수리아 총독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 위기를 극복한다.

헤롯은 BC 40년에 권력에서 밀려난 하스몬 가문의 아리스토틀루스 아들

73) 논문의 지면 관계상 ‘헤롯 왕’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헤롯 왕’에 대해서는 한국성서학연구소의 「성서마당」 (2013), 106~108호, 류호성이 연재하는 “요세푸스 유대고대사” 참조.

인 안티고누스가 페르시아 세력을 등에 업고, 유대를 공격하였을 때에 다시 위기를 맞이한다. 이때에 그의 형 파사엘은 음모에 걸려 체포되어 자결하였고, 헤롯은 로마로 피신하여 안토니우스를 만났다. 안토니우스는 유대 나라가 페르시아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이 로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원로원의 도움을 받아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임명하였다. 헤롯은 ‘왕’이었으나 정작 다스릴 영토가 없었기에, 로마의 도움을 받아 3년간 안티고누스와 전쟁하였고, 마침내 BC 37년에는 그를 몰아내고 진정한 유대의 통치자가 된다. 이때 그는 이두매라는 혈통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스몬 왕가의 공주인 마리암메(I)와 결혼한다.

권좌에 오른 헤롯은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하스몬 왕가의 사람들을 처형하기 시작하였다. 제일 처음에 희생된 사람은 처남으로 아리스토블루스(III)이다. 장모의 입김에 헤롯은 16세의 어린 처남을 대제사장직에 임명하였으나, 장막질에 참석한 백성들이 그의 수련한 용모를 보고 하스몬 가문의 옛 영광을 그리워하자 축제가 끝나자마자 여리고에서 익사시켰다(BC 34년). 그의 재임 기간은 1년도 채 안되었다.

BC 31년에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그리스의 악티움에서 힘겨루기를 할 때에, 헤롯은 병사를 직접 이끌고 안토니우스를 지원하러 갔다. 하지만 안토니우스는 헤롯의 도움을 거절하고, 그 대신에 클레오파트라로부터 아랍 왕의 불성실함을 듣고, 그를 처벌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헤롯은 안토니우스의 명령에 따라 군대를 이끌고 아랍을 공격하였다. 이것은 클레오파트라가 바라던 것으로, 두 왕이 전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면 두 나라 모두를 자신의 점령지로 만들려고 그녀는 계획하였다.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자 헤롯은 다시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틈을 노려 하스몬 왕가의 힐카누스는 아랍으로 피신한 다음 권력을 되찾으려고 계획하였다. 하지만 헤롯이 이 계획을 알고 그를 처형하였다(BC 30년). 힐카누스를 처형하고 나서, 헤롯은 로마로 건너가서 옥타비아누스를 만난다. 그리고 그는 솔직히 자신은 안토니우스의 지지자라고 말하고,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옥타비아누스는 헤롯의 솔직함을 흠족히 여기고 그를 유대의 ‘왕’으로 인정해 주었다. 그래서 헤롯은 전보다 더욱 확고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로마에서 귀환한 후에 그는 아내 마리암메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처형하였고(BC 29년) 그리고 장모 알렉산드라도 모반을 계획하자 처형하였다(BC 28년).

정치적 기반을 구축한 다음 헤롯은 활발한 건축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는 사마리아를 요새화 한 다음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바스테

(Sebaste)라고 개명하였다(BC 27년). 그리고 가이사랴를 아름답게 꾸미고 자 흰 돌을 사용하였고, 바다에는 큰 돌들을 메워 인공 항구를 만들었으며 또한 지하 수로를 만들어 빗물과 가정의 하수가 바다에 흘러들어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건설하였다. 가이사랴를 도시로 건설하는 데는 무려 12년이나 걸렸다(BC 22-9년). 무엇보다도 헤롯은 BC 20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다. 이 성전은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보다는 2배의 크기였으며, AD 63년이나 되어서 완공되었다. 그리고 그는 로마와 최후의 항전을 벌인 천혜의 요새 맛사다(Massada)를 다시 견고하게 건축하였으며(BC 37-31년), 또한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헤로디온(Herodion)을 요새화하였고(BC 24-15년), 후에는 이곳을 자신의 장지로 삼았다. 그는 유대 나라 전역에 성이나, 원형 극장 그리고 전차 경기장들을 건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건축 사업에도 활발하게 지원하였다. 한편 그는 건축사업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자,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윗의 무덤에 들어가서 보물을 꺼내오기도 하였다.

헤롯은 자신이 처형한 마리암메를 제외하고 다른 9명의 아내를 두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왕위쟁탈전으로 고생을 하였다. 그는 자신이 죽인 마리암메 사이에서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틀루스(IV)라는 두 아들을 두었고, 처음에는 이들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마리암메를 죽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동생 살로메는 이들이 왕위에 오르면 자신에게 좋을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들이 어머니를 죽인 헤롯을 싫어한다고 헛소문을 퍼뜨렸다. 그러자 헤롯은 이들을 견제하고자, 도리스(Doris)에게서 난 첫째 아들 안티파테르를 왕궁으로 불러들였다. 안티파테르는 좋은 기회를 잡자, 이복동생들을 제거하고자, 이들이 헤롯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으려한다고 음모를 꾸몄다. 안티파테르의 소식을 사실로 믿은 헤롯은 두 아들을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고소하였으나, 황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부자간에 화해를 주선해 주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안티파테르의 음모와 헤롯의 의심하는 성격으로 인해, 결국은 황제의 허락을 받고 BC 7년에 이들을 처형하였다.

한편 왕이 되고 싶어 안달한 안티파테르는 자신이 로마에 있는 사이에, 숙부 페로라스를 시켜 아버지 헤롯을 독살하려고 계획을 꾸민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만나러 로마로 향한다. 이때에 헤롯은 안티파테르가 자신의 뒤를 이을 것이며 그리고 그가 죽으면 대체사장 시몬의 딸인 마리암메(II)에게서 낳은 빌립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유언서와 함께 보낸다. 하지만 헤롯은 안티파테르가 자신

을 독살하려고 음모를 꾸민 전모를 알고, 그를 빨리 귀국하도록 중요한 다음, 로마에서 돌아오자 그를 수감하였다. 그리고 헤롯은 자신의 왕국을 말다케 사이에서 태어난 안티파테르에게 넘겨준다고 유언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쯤에 헤롯은 이미 중병에 걸려 온몸에 심한 가려움증이 있어 긁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는 요단강 건너에 있는 온천까지 가서 목욕을 하였지만,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점점 난폭해졌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으며 자신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자신의 장례식을 슬픈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유대의 유력인사들을 죽이려고 계획했다. 그래서 그는 유대 전역에서 유력인사들을 불러 모은 다음 경기장에 가두었다. 그리고 여동생 살로메와 그녀의 남편에게 자신이 죽으면,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고, 먼저 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야 온 백성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울부짖기 때문에, 자신의 장례식도 애곡하는 분위기가 될 것이라 하였다.

헤롯은 죽기 며칠 전에 사과가 먹고 싶어서 사과와 칼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는 칼을 보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조카가 이를 저지하면서 고함을 지르자, 왕궁은 헤롯이 죽은 줄 알았다. 감옥에 있던 안티파테르도 부친이 죽은 줄 알고, 자신이 석방되면 왕이 될 것이라고 간수를 찌었다. 하지만 그가 이 사실을 헤롯에게 알려바치자, 헤롯은 안티파테르를 처형하고 장례식도 치르지 말고 묻어 버리라고 명령하였다. 이 사건은 그가 죽기 5일 전에 일어났다. 그리고 헤롯은 마음을 바꾸어 다시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주요 변경 내용은 안티파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왕국을 아켈라오에게 물려주고, 안티파스에게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빌립에게는 드라고닛과 그 주변 지역을 물려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헤로디온(Herodion)에 묻어 달라고 유언을 남겼고, 아들 아켈라오는 아버지 유언대로 그곳에 매장하였다(BC 4년). 헤로디온은 2007년도 고고학자 에후드 네쩌르(Ehud Netzer)에 의해 발굴되었다.

4.2. 결론 및 평가

이 대안의 장점은 ‘대안 2’와 거의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더 많은 양의 자료들이 제공되기에 예수 탄생 전후로 해서 더 세밀한 사회,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대안 2’처럼 각주도 잘 활용하지 않는 독자들이, 뒤에 있는 부록의 자료들을 이용한다는 것은 좀 더 어려울 듯하다.

5.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교학사’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역사 교과서의 문제를 갖고 좌우 이념논쟁이 뜨겁다. 반대하는 쪽은 우리의 근현대사가 친일과 친미의 성향을 보이고, 여기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독도’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적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는 역사 교과서에 현재 ‘일본해’로 표기된 것을 ‘동해’로 함께 표기해야 한다고 올해 2월 6일 하원을 통과하여 주지사의 서명만 남았다. 그리고 ‘동해 병기 표기’가 미국의 다른 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역사적 사실성과 해석의 문제로 언제나 역사를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뜨거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기독교는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여기에 그 해석을 전개해 나아가는 역사적 종교이다. 그러기에 신약 성경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을 둘러싼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먼 2천 년 전의 세계이다. 그래서 현대의 독자들은 당시에 전개되는 숨가쁜 역사적 정황, 특히 당시대를 통치했던 ‘헤롯 가문’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여기에 복음서 기자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헤롯 가문’의 사람들을 구분했다고 하지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과 세례 요한 그리고 사도 야고보를 처형한 사람을 ‘헤롯 왕’이라 표기하여, 현대의 독자들은 이 사건들을 한 사람이 행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과 드라고넛 지역을 다스린 사람을 동일하게 ‘빌립’이라고 표기하여,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역사적 사실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 새롭게 성경을 번역한다면 이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성경의 번역자가 직접 성경 본문에 개입해서 이들의 이름을 수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준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을 기준으로 해서, 세례 요한을 죽인 자를 ‘안티파스’로 그리고 사도 야고보를 죽인 자를 ‘아그립바’로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재판에 참석한 자가 아버지와 이름이 동일한 ‘아그립바’이기에, 아들에게는 ‘아그립바 2세’로 표기하는 것이다. 또한 두 명의 ‘빌립’을 구분하고자, 모계 혈통으로 구분해서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을 ‘마리아매의 아들 빌립’으로, 그리고 드라고넛 지역을 다스린 자를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빌립’으로 바

꾸는 것이다. 이 대안의 장점은 헤롯 가문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을 혼동하지 않고,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의 독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일점일획도 틀림없이 주셨는데, 그것을 번역자가 마음대로 수정했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두 번째 대안은 성경 본문은 그대로 두고, 각주를 표기한 다음 성경 본문 아래에 헤롯 가문의 사람들에 대해서 짧은 역사적 정보를 주는 것이다. 또한 세 번째 대안은 성경 뒷부분에 용어해설이라는 부록을 두어, 헤롯 가문의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한 역사적 정보를 주는 것이다. 이 대안의 장점은 성경 본문을 훼손하지 않고, 독자들에게 헤롯 가문에 대해 역사적 정보를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은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우선인 독자들이, 얼마나 이 각주나 부록을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도 최선의 방안이라면 두 번째 대안이 우리의 현실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말 성경은 각주를 이용하여 독자들에게 본문 이해를 돕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 번역될 성경의 독자들은 1세기 당시의 ‘헤롯 가문’의 사람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Keyword)

헤롯 가문, 헤롯 왕, 안티파스, 아그립바, 성탄연극 효과.

Herodian family, king Herod, Antipas, Agrippa, the effect of the Nativity play.

(투고 일자: 2014년 2월 13일, 심사 일자: 2014년 2월 21일, 게재 확정 일자: 2014년 3월 5일)

<참고문헌>(References)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Das Neue Testament Griechisch und Deutsch: Revidierte Fassung der Lutherbibel von 1984 und Einheitsübersetzung der Heiligen Schrift 1979,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Katholische Bibelanstalt GmbH, 1986.

Good News Translation,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1992.

The Holy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s,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9.

요세푸스, 『유대고대사』, 『유대전쟁사』, 서울: 달산출판사, 1992.

류호성, “‘호칭’을 통해 살펴본 헤롯 가문에 대한 역사적 이해 -설교자를 위한 마 2:1-23절의 역사적 배경”, 『신약성경과 설교』, 한국신약학회 (2013), 32-46.

류호성, “유대고대사”, 『성서마당』 102 (2012)~107 (2013).

deSilva, David A., 『신약개론』, 김경식 외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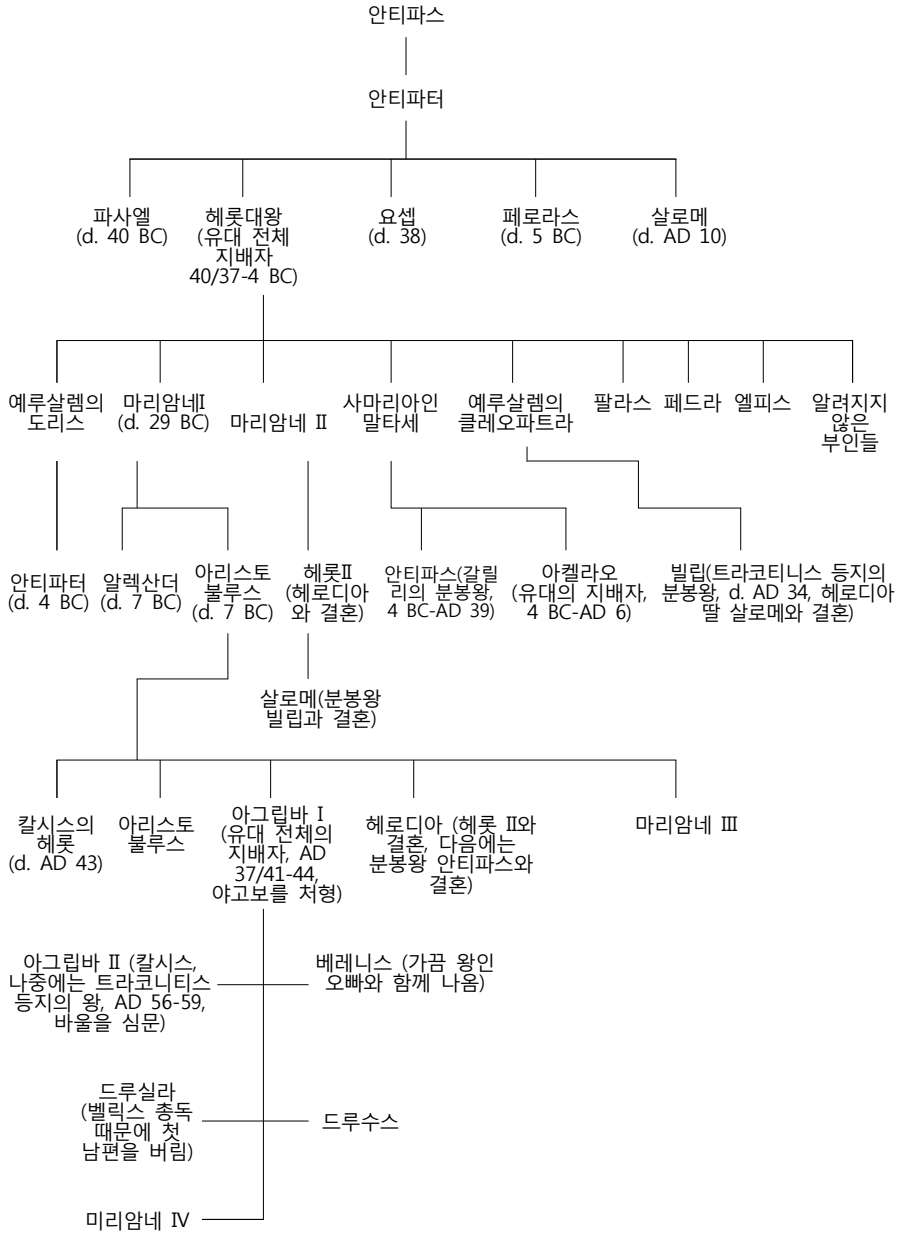
Ho-Seung Ryu, *Jesus und Johannes der Täufer im Matthäusevangelium*, Frankfurt: Peter Lang, 2006.

Levine, L. I., “Herod the Great”, *ABD* III, 161-169.

Rogers, C. L., 『요세푸스』, 김정우 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2000.

Mason, S., 『요세푸스와 신약성서』, 유태엽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헤롯 가(家)의 주요 인물들>



<Abstract>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the Herodian Family in the Gospels and the Acts

Prof. Ho-Seung Ryu
(Seoul Jangshin Univ.)

There are several members of the Herodian family found in the New Testament. The modern Bible reader has difficulty distinguishing between the three kings called Herod (Mt 2:1-18; Mk 6:14-29; Acts 12:1-2). Here are a few reasons why I believe this difficulty has occurred:

First, the modern era is thousands of years apart from the times of the New Testament. Second, the Nativity play has effected people's minds. When Jesus was a baby, King Herod attempted to kill the baby Jesus. This has made an impression on the mind of the Bible reader. As they read the Bible, they think that the 'King Herod' who attempted to kill baby Jesus, also killed John the Baptist and James the Apostle. Third, all three King Herod's are different people, but they are all called by the same name in the New Testament.

Here are some suggestions to overcome this difficulty in a new Korean translation:

First, the Bible translator(s) give the three Herod's their individual names. For the first Herod who attempted to kill Jesus when He was a baby, it is suggested to keep his name as 'Herod'. The one who killed John the Baptist may be called 'Antipas', and the other who killed James the Apostle 'Agrippa'. Agrippa (who killed the Apostle James), had a son called by the same name, who appears in Acts 25-26. His son was present at the trial of the Apostle Paul. He had the same name as his father, thus, the son of Agrippa was named 'Agrippa II'. This would make it more simpler for the reader to distinguish the three kings called Herod without confusion. The three kings would have their own names, and would take away the difficulty for the reader about the Herodian family. However, the new Korean translators would be criticized for destroying the original Bible text.

Second, they could use footnotes instead, which would give simple information about the history of the Herodian family.

Third, they could use the Appendix to give lots of information about them. This would mean that the original Bible text would remain the same, and the information about the history of the Herodian family would be available to the reader. The only problem with using the Appendix would be that the reader generally does not use it because they concentrate on the Biblical text.

I would conclude that the second suggestion, using footnotes, would be best suitable for the situation of the Korean Church. Korean Christians dislike the alteration of the Biblical text because they believe that God wrote the Bible.